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부활 제 3 주일 (생명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5월)

#### 복음화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5,27ㄴ-32.40ㄴ-41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 그리고 13ㄴ(◎ 2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5,11-14  
<살해된 어린양은 권능과 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9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영성체송**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 영성체 후 묵상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오는 사도들의 당당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제 12 회 생명 주일 담화 -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향하여 ♣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 생명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으니,  
그 인간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생명의 복음」, 33 항)

형제자매 여러분!

5월 1일은 생명, 특별히 인간 생명의 신비를 경축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며, 보호할 것을 다짐하는 생명주일입니다. 교회는 제 12회 생명 주일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죽음의 문화'를 직시하면서 생명 존중과 보호에 앞장서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1. 교회는 인간 생명을 소중한 부부 사랑의 결실이요, 하느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인간 생명은 결코 인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 곳곳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의 몸 안에 잉태된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기에 낙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형법상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사도 5,29)라는 말씀처럼, 실정법으로 허용하더라도 하느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교회는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다루어질 관련 법 개정안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용인하는 쪽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화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3. 임신·출산·양육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충과 아픔을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나아가 교회는 임신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인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4.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활력을 주는 기본 세포인 가정은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법적 가족 개념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가족 개념 자체를 확대, 변경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 교회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부부의 사랑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표지, 곧 성사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힘을 쏟아 주십시오.

6.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고자 의사나 간호사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 또는 '안락사'라고 부르는 조력 자살은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좌절'이라 여기고, '삶의 가치를 오로지 쾌락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기준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또는 '고통을 줄여 주는 자비'라고 미화하더라도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교회는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평안하고 인간다운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 의료 대상이 일부 환자에게 국한되어 있고 호스피스 시설과 제도적 장치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과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자 더욱 힘써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증진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이 짐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 미혼 부모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등이 소중하게 보살핌을 받는 사회, 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고 인간답게 마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생명의 신비를 드높이 경축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결과**

우리 공동체에서 동참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카리타스 모금 운동: \$481.50 |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비니스 모금 운동: \$486.90**  
 을 회계연도 우리 공동체의 복지예산 잔액(\$1,949) 중 \$1,031.60을 상기 모금액에 더해 각 지향별로 \$1,000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후원 기관에 전달합니다.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노동절 담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젊은이야, 일어나라(루카 7,14 참조)**

사회의 정의로움은 약자들 가운데 가장 약자, 곧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노동자인 청소년 노동자'(마태 25,40 참조)의 보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소년이 더 이상 어른의 탐욕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지적 그리고 경험적 상황에 걸맞게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회가 절실히 요구됩니다(『간주린 사회 교리』, 296항 참조). 이를 위하여 이제 정부와 교육계, 기업과 사회 전체 어른들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실행 그리고 현재의 노동 현실과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 또한 인간의 탐욕이 아닌 인간의 생명과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 담화 전문 : <https://cbck.or.kr/Notice/20220204?page=2&gb=K1200>

**성소 주일 (성소를 위해 세계 기도의 날)**

성소 주일은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날로 부활 제 4 주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앙인들은 각자 성소를 갖게 되며, 교회는 이러한 모든 성소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성소 주일에는 특별히 사제직, 수도 생활, 선교 활동, 재속회, 종신 부제직에 봉헌된 성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성소가 교회의 생활과 그 사명 완수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는 성소 주일(5월 8일)에 성소후원(신학생 양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022년 주님 부활 대축일 기념영상**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올해 공동체의 주님 부활 대축일 기념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캔버라·골번 대교구 다문화 미사**

올해 대교구 다문화 미사가 잘 봉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 제 3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고기잡이의 기적'  
콘라드 비츠 작

"나를 따라라"(요한 21,19).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주일 미사 참례자수

4 월 17 일	성인 54 아이 25	4 월 24 일	대교구 다문화 미사
----------	-------------	----------	------------

우리들의 정성 (4 월 16 일(토)~4 월 22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윤헌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민	주정자	한상지	
교무금 : \$670 (15가정) / 봉헌금 : \$260							

우리들의 정성 (4월 23일(토)~4월 29일(금))

구민식	권묘순	양홍석		교무금 : \$160 (3 가정)
-----	-----	-----	--	--------------------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 (5 월 1 일, 부활 제 3 주일, 생명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5 월 8 일, 부활 제 4 주일, 성소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5 월 1 일) 마르코반 → (8 일) 마태오반 → (15 일) 루카반 → (22 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 (5 월 1 일) 루카반 → (15 일) 마르코반 → (29 일) 마태오반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 성당 출입 시 손 세정 및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성당 출입 시 QR 코드 스캔, 체온측정 중단)

♡ 안영규 필립보, 전현우 필립보 학생(3 일), 조민재 도미니코사비오 청년(6 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2022 년 어머니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올해 어머니의 날(5 월 8 일 주일)을 맞아 여성 교우님들을 위한 와이너리 점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소공동별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우님들은 서은주 데레사 자매님(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성 교우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 5 월 6 일(금요일) 오후 12 시, Four Winds Vineyard

점심(피자) 및 차량 지원(성당에서 함께 출발, 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